

강진군, '소통과 공감으로 민원행정 혁신 나선다'

무안, 노인 자살예방사업
'내·안·愛' 마무리

강진군이 지난 15일 민원봉사과 상담실에서 민원창구와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는 최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민원행정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악성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군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와 민원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이날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민원행정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안전가

림막과 휴대용 녹음장비 등 보호 장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김준철 강진 부군수는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여러분이 강진군의 얼굴이자 행정의 시작"이라며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민원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 /전문재 기자



강진군이 15일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노인 자살예방사업 '내·안·愛(내가 나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 138명을 대상으로 사전 우울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집중 관리가 필요한 30명을 선별해 관내 경로당 4개소에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노년기 우울감과 고립감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감정 표현 및 스트레스 완화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에 나갈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화장장 공공성 강화·직영 전환 추진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희)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해 올해 5월 완료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운영방식 타당성 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유사 지

체 운영사례 분석을 비롯해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운영관리 효율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민간 위탁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익 귀속 구조 개선 ▲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관내 우선 원칙 제도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약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대동면, 어르신 건강 위한 발마사지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이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 35개소에 발마사지기를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응원했다.

함평군은 19일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지역 특화사업인 '활력충전 발마사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

강관리를 돕고 활력 있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경로당 35개소를 방문해 발마사지기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며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를 병행했다. 이

재갑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오늘 지원한 발마사지기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동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주민 욕구조사 실시

영암군이 2027~2030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과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주민들의

복지 수요와 지역 여건을 파악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영암군민이며, 영암군 누리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돌봄·건강 ▲생애주기 ▲자립·고용 ▲교육·환경 등 4

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과 지역사회 문제, 필요한 복지정책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민선9기, 청렴·공정행정으로 군민주권 시대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15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 실천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행정 실천 계획은 군민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고, 일상 속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 신뢰받는 신안군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안군은 건축 인허가, 수산업 허가 등 각종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평균 3~4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경제활동 진입을 도와 군민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민들은 사유재산인 건축물을 조성할 때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게 되었다. /박성태 기자

